

## 영과 혼과 몸(spirit & soul & body)

영과 혼과 몸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오직 성경을 통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탄생에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생애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시다. 그것은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the dust of the ground)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the breath of life)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魂)(a living soul)이 되니라.(창 2:7)

이것이 사람이 생겨난 구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후로 다른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흙은 몸(body)으로 생명의 숨은 영(spirit)으로 혼은 그대로 혼(sou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 한번도 바뀐 적이 없으며 신약성경에서도 이 구조에 대하여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는 도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살전 5:23)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骨髓)를 찢러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히 4:12)

이 셋은 한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 세 속성,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을 합쳐서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함에 있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이 셋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세 인격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 영(spirit)

성경은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창 1:2, 롬 8:14), 마귀의 영(눅 4:33), 그리스도의 영(롬 8:9), 세상의 영(고전 2:12), 사람의 영(잠 20:27, 고전 2:11), 아들의 영(갈 4:6) 등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 이외에도 더욱 많은 구절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의 속성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에 관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부분만을 다룰 것입니다.

첫째로 영은 이성적인 판단에 기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직관(直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느낌(feeling)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영은 사람의 몸 안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의 이러한 활동을 경험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고(마 26:41)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요 11:33)

그분께서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8:12)

이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영의 상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성과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했지만 영으로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靈) 안에서 놀림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행 18:5)

또 나와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음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인정하라.(고전 16:18)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있어서 그분 자신의 영으로 아셨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따져 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들을 마음속으로 따져 보느냐?(막 2:8)

이 말은 영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과거에 마술사들이나 오늘날 최면술사들을 통하여 흔히 나타나는 일이며, 또한 무속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이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가서 영의 일들을 알고자 했던 사실들을 봅니다.

이같이 사울이 죽은 것은 [주]께 범한 범죄로 인함이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그 영에게 묻고(대상 10:13)

그러나 그들에게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들을 흉내 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것들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1)

사람들이 어떠한 가르침이나 동기가 생길 때 무엇인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들의 활동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을 헌신하도록 돕고, 더욱 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도록 돕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을 배워 영이 뜨겁고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더라(행 18:25)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인하여 활력을 얻었음이라(고후 7:13)

둘째로 영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의 일들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과 더불어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알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뿐만 아니라 영은 그 사람 안에서 모든 부분을 살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니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잠 20:27)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양심과 관련한 영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통회(痛悔)하는 영(시 34:18), 정직한 영(시 51:10), 두려움의 영 그리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딤후 1:7)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권능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네 하나님께서 그를 네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영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니 곧 이 날에 드러난 것과 같으니라.(신 2:30)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을 움직이실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미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고자 애쓰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매(행 16:6,7)

성령은 바울 안에 있는 영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바울이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거듭난 자들의 영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그 판단의 능력이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고전 5:3)

바울의 몸은 빌립보에 있었지만 그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함은 바로 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마술사들이나 주술사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은 우리의 몸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몸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고후 12:2,3), 또한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거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요 13:21)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속에서 격동하므로(행 17:16)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영이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고후 2:13)

영의 괴로움, 혹은 안식과 같은 것들은 혼과 육신의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특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일들에 대하여 반응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영 스스로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영의 상태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요 3:5-8)

첫 사람 아담은 그 탄생의 기준이 혼(soul)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영을 살게 하시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혼을 말해야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난 것은 바로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고전 15:45)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태가 주와 한 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 6:17)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겠고 너희를 너희 자신의 땅에 두리니 나 주가 이것을 말하고 이행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겔 37:14)

그것은 영의 상태가 바뀌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영의 활동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전의 영의 상태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속박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거듭난 이후의 상태를 “양자 삼으시는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아바, 아버지, 라 부르짖느니라.(롬 8:15-16)

결국 거듭난 영은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활동함에 있어서도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경배하는 일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눅 1:47)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요 4:23)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롬 1:9)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은 영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육은 이러한 활동을 좋아하지 않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경배하려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경배하는 일들을 기뻐할 것이며, 또한 그 일들을 위해 수고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지각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또 지각으로도 노래하리라(고전 14:15)

또한 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전의 율법 안에서 행했던 일들을 통하여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붙들던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롬 7:6)

이 말은 그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이 새로워짐으로써 이전과 다른 상태가 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전과 같은 혼(soul)과 육신(body)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의 혼과 육신은 영원히 살게 될 기회를 얻느냐? 아니면 얻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거듭났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 혼(soul)

만일 사람의 실체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그것은 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답은 엄격히 말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영과 혼과 몸이 하나를 이루어 실체, 즉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경 안에는 사람의 수를 셀 때 혼의 숫자로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이른 혼은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예순여섯 혼으로 이들은 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며 또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 두 혼이 있으니 야곱의 집 혼으로 이집트에 이른 자가 모두 일흔 혼이었더라(창 46:26,27)

이 영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가 몇 안되니 곧 여덟 혼이라(벧전 3:20)

우리는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혼을 사람의 수로 헤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창 46:15,18,행 2:41,43,7:14). 왜 사람의 수를 말할 때 혼의 수를 말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실체가 바로 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사람을 지칭할 때 혼으로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창 12:5,17:14,롬 13:1,출 12:19). 우리를 더욱 흥미롭게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혼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요, 오직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를 자들이니라(히 10:39)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약 1:21)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벧전 1:9)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 대하여는 혼을 잃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은 전부를 잃는 것과 같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과 바꾸겠느냐?(마 16:26)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魂)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과 바꾸겠느냐?(막 8:36,37)

혼을 잃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이 떠난다는 것은 바로 단순히 그의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혼이 그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곧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음이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나민이라 하더라(창 35:18)

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 해석을 한답시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가령 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의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성경들의 대부분은 아예 이 구절에서 혼에 관한 구절을 대신하여 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흠정역)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이는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출 12:15)

Seven days shall ye eat unleavened bread; even the first day ye shall put away leaven out of your houses : for whosoever eateth leavened bread from the first day until the seventh day, that soul shall be cut off from Israel(Exo12:15).

(개역)너희는 칠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칠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출 12:15)

(흠정역)이레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는 혼은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지리니(출 12:19)

Seven days shall there be no leaven found in your houses : for whosoever eateth that which is leavened, even that soul shall be cut off from the congregation of Israel, whether he be a stranger, or born in the land(Exo12:19)

(개역)칠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무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출 12:15)

그렇습니다! 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곧 죽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외되거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만일 혼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만 취급되게 된다면 우리는 자칫 이 문제에 대하여 논쟁을 하거나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도 속죄의 대상이 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을 드렸던 것은 바로 혼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속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計數)하여 총수를 조사할 때에 각 사람은 자기 혼(魂)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代贖物)을 드릴지니 이것은 네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출 30:12)

너희 혼의 속죄를 위하여 [주]께 헌물을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 돈을 취하여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할지니 이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을 속죄하리라(출 30:15,16)

이처럼 혼은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쉬운 예로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이나, 혹은 그들의 신, 아니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의 서신을 통하여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자신의 혼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이라(살전 2:8)

이처럼 혼의 존재는 우리의 현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속이는 자들은 마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혼과 몸의 존재를 무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은 대부분 금욕적이며 또는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로 매일 참회를 요구하고, 스스로 육신을 학대하며 심지어 완전히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 혼이며,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셔들이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후로 영이 거듭나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요구할 때 혼은 그 일에 대하여 결실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모두가 기록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 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갈 5:22,23)를 맺는 생애를 요구하지만 이 일에 대한 결과는 혼이 순종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혼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훈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딤후 4:7,6:11).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혼은 지속적으로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혼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심하는 것들이 혼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론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지만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영은 지식(knowledge)을 소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알았을 때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혼은 지식을 소유합니다.

또한 혼에 지식이 없으면 선하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잠 19:2)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하므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애 3:20)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시간들을 계획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지식의 수준만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혼 안에서 계획하며 날마다 마음 속에서 슬퍼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 원수가 나보다 높임을 받는 것이 어느 때까지니이까?(시 13:2)

그렇다면 지식 가운데 혼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엡 4:13, 빌 3:8, 골 1:10, 뱀후 3:18).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골 2:3)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를 통하여 그의 혼이 찬양하는 이유를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두렵고도 놀랍게 나를 만드셨음이니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니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시 139:14)

이는 혼이 단순히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또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성령님께 자신을 의지한다는 이유로 분명한 주님의 명령과 사실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사실들을 알고 또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정(emotion)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도 느낌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순간적이고, 초월적인 것이라면 혼은 극히 현실적이며, 시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혼이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딸들로 인해 그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므로 다윗이 크게 곤란을 당하였으나 주 그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삼상 30:6)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녀의 혼이 속에서 괴로워하니 그녀를 가만 두라. 주께서 이것을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왕하 4:27)

우리를 더욱 흥미롭게 하는 것은 주님 자신도 혼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주]를 섬기니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근심하시니라(삿 10:16)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마 26:38)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요 12:27)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되 '주의 혼이 지옥에 내버려지지 않았으며, 또 주의 육신도 부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였느니라.(행 2:31)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심에 대하여는 말하면서도 그분께서 인격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은 혼이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혼으로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 걸쳐서 혼의 기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사 55:2,61:10,잠 16:24).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감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은 분명히 어떤 상황에 대하여 보고 판단하여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슬픔, 기쁨, 괴로움, 낙심...등 사람의 속에 드러나는 것들은 혼의 활동이라는 사실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혼은 의지(will), 즉 어떤 일들에 대하여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의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의지(will)의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혼이 내 생명을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욥 7:15)

이제 너희는 마음과 혼을 가다듬어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대상 22:19a)

내 혼이 만지기도 거부한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음식같이 되었도다.(욥 6:7)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혼의 활동을 무시해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인도 하는대로 행동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의 영의 생각대로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율고 그름에 대한 지시와 판단은 영을 통해서 오지만 순종하는 것은 혼의 의지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벧전 1:22)

이제 혼에 관한 결론을 내려봅시다. 혼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벧후 3:9). 그러나 이미 육신이 죽은 자들의 혼들은 오히려 속히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魂)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더 안식하되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계 6:9-10)

우리의 혼을 무엇이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혼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사람의 혼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반드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약 1:21)

## 몸(Body)

몸에 대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의 몸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 많은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기능들은 쉴 새 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몸의 구조에 있어서도  
다양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피, 즉 A, B, AB, O 형과 같은 다른 피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조차도 +, -로 구분되고 각 민족들마다 피부가 다르고 눈과 머리의 색깔이 다른 수많은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람의 구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없으므로 성경이 말하는 몸에 대하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몸(Body)과 육체(Flesh)의 비교

성경 안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몸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몸(Body)과 또 다른 하나는 육체(Flesh)입니다. 이것은 그 구성에  
있어서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몸은 영과 혼을 설명할 때에 대비하여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영과 혼과 몸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는데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spirit)과 혼(soul)과 몸(body)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살전 5:23)

또한 몸은 머리의 상대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주 설명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는 몸(body)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골 1:18)

반면에 육체(Flesh)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살, 고기 덩어리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뼈와 피와 대조되어 설명될 때에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몸의 구성원인 뼈와 피와 함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 대신 살(Flesh)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제 이것은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Flesh)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창 2:21-23)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Flesh)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39)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Flesh)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고전 15:50)

그러나 성경의 더욱 많은 곳에서 육체(Flesh)는 영의 상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과 혼을 동일한 자리에 놓고 설명할 때에는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생활과 관련하여 영적(spiritual)인 것들을 대조할 때에는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육체(Flesh)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靈)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Flesh)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 6:3)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Flesh)이 약하도다, 하시고(마 26:41)

육(Flesh)에서 난 것은 육(Flesh)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요 3:6)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Flesh)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롬 8:9)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Flesh)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 예수님의 몸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관련하여 육체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 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가리킬 때 몸이라고 말을 하지 육체라고 말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살과 피와 뼈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葬事)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막 14:8)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지내기 위한 것이니라(마 26:12)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집으셔서 축복하여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심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신앙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만찬을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규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과 동일하게 오셨고, 그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사실에 대하여 고백하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나누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마 26:26)

제자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나누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막 14:22)

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나누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눅 22:19)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몸의 구성을 이루는 피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는 살로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뼈는 무엇입니까? 의학자들은 뼈가 피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살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뼈는 어찌 보면 살을 균형 있게 만들어 주고, 피를 생산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찬에서 뼈를 기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6:54-57)

예수님께서 사람과 동일한 몸의 구성을 지니시고 계셨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많은 속이는 자들이 예수님의 몸이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과 뼈, 그리고 피를 가지신 완전한 몸을 이루시고 계시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딤후 2:5)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우리를 더욱 흥미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꺾어버린 것같이 지금도 그러하다(갈 4:29)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그 육체가 만들어진 분이시고(롬 1:3), 그 안에 성령, 즉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2-3).

이는 속이는 자가 세상에 많이 들어왔음이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요이 1:7)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며, 또한 적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변질과 배도로 얼룩진 세상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 사람의 몸

몸을 표현함에 있어서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은 바로 시체를 말할 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민 6:6 민 9:6 민 9:7 민 9:10 민 19:11 민 19:13 민 19:16 민 19:18 민 31:19 신 21:23 삿 19:29 삼상 31:10 삼상 31:12 대상 10:12 대하 16:14 대하 20:24 대하 20:25 에 9:13 시 79:2 시 110:6 렘 26:23 렘 31:40 렘 33:5 렘 34:20 36:30 렘 41:9 암 8:3 학 2:13 눅 17:37 계 11:8 계 11:9). 성경은 죽은 사람의 존재를 가리켜 육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몸(body)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피와 뼈와 살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레 21:11

어떤 시체(dead body)에라도 가까이 가지 말지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도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어린 아이를 낳을 때 자식을 몸에서 나온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삼하 16:11, 대하 32:21, 욥 19:17). 몸에서 나온 것은 그 안의 모든 요소들, 즉 피와 뼈와 살들을 모두 가지고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삿 8:30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삼하 7:12 네 낳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 곧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세워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의 모든 요소들, 즉 피와 뼈와 살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유전의 요소 안에는 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난 자들인 모든 인류들은 죄인이며, 그의 몸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털어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롬 7:24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골 2:11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느니라.

롬 6:12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하여금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것은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혼이 아무리 죄와 상관없이 지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몸 안에 거하는 죄는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이 금욕생활이나 또는 노력을 통해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죄의 요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몸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한 비밀

그렇다면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몸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몸은 분명히 찢겨지셨고, 피를 완전히 쏟으셨으며, 무덤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몸은 다시 살아나셨고,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며, 도마를 통해 만질 수 있음을 증명하셨고, 사방이 막힌 곳을 통과하는 능력을 보이시기도 했으며,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나타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인적인 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차 그들이 가지게 될 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15:44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리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은즉 영에 속한 몸도 있느니라.

엡 3:6 이 신비는 곧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빌 3:21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게 하시리라.

분명히 그 몸은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며(고전 15:20-23),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몸의 위치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상징적인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은 머리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이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제 지체는 많으나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럴 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나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심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고자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다 지체라. (고전 12:17-27)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마치 홀로 그리스도인인양 말하고 다닌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몸의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개별적으로 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한 부분, 즉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의 회원(지체)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알고 충성하여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